

취향 저격 로맨스 코미디

안효섭 × 김세정



2월 28일(월) 첫 방송

〈그해 우리는〉을 잇는 달콤 상큼한 로맨스 드라마가 온다.

새 월화드라마 〈사내 맞선〉(연출: 박선호, 극본: 한설희, 홍보희)은 얼굴 천재 능력남 CEO와 정체를 속인 맞선녀 직원의 스킬 가득 '퇴사 방지' 오피스 로맨스다. 원작인 동명의 웹소설과 웹툰이 국내외 누적 열람 수 3억 2천만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얻어, 캐스팅 단계부터 팬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안효섭, 김세정, 김민규, 설인아 출연 소식에 팬들은 "더 이상의 캐스팅은 없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수상한 파트너〉, 〈기름진 멜로〉 등 로맨스물 전문 박선호 감독의 경쾌한 터치와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의 한설희, 홍보희 작가의 유쾌한 각색이 어우러져 로맨스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안효섭이 맡은 강태무는 신이 빛은 듯한 우월한 외모와 섹시한 매력, 천재적인 두뇌, 사업가로서의 감각과 수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재력까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재벌 3세다. 그런 그에게도 약점은 있다. 강박증처럼 거짓말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보다 일을 사랑하는 워커홀릭으로 차갑고 까칠하다. 태무는 할아버지(이덕화 분)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보게 되는데, 더 이상 일에 방해받지 않으려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결혼을 결심하고 맞선자리에 나간다.

김세정이 맡은 신하리는 집에서는 완벽한 외모의 엄마(정영주 분)와 동생(최병찬 분)에게, 학교에서는 재벌 친구(설인아 분)에게 밀려 존재감이 부족하지만, 씩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물이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싶은 신하리는 재벌 친구를 대신해 퇴짜 맞는 것을 목표로 맞선 자리에 나갔다가 자신의 회사 대표인 김태무를 만나게 된다. 차이기 위한 신들린 듯한 '미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태무로부터 청혼을 받게 된 하리. 이제 하리는 자신의 본캐를 숨기기 위한 급조된 '섹시 팜므파탈' 부캐와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본캐를 오가며 정신없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김민규는 바른 성품으로 성심껏 태무를 보필하는 비서실장 차성훈 역을 맡았다. 누구에게나 적절한 태도와 언행으로 선을 지키는 인물이다.

설인아는 신하리의 절친이자 마린그룹 진 회장의 외동딸인 진영서 역으로 분한다. 화려한 외모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나, 언젠가 찾아올 운명적 사랑을 기다려온 순정적 캐릭터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차성훈. 영서는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걸크러시 매력을 선보인다.

그밖에 그 지역 최고의 미녀를 얻는 데 성공했으나, 하는 일마다 망해 지금은 아내가 하는 치킨집에서 일손을 거들어주고 있는 하리의 아빠 신중해 역으로 김광규, 하리가 7년 동안 짝사랑해온 대학 동창 이민우 역으로 송원석, 하리의 직장 상사이자 든든한 조력자인 여 부장 역으로 김현숙이 출연한다.

유쾌 발랄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 〈사내 맞선〉은 2월 28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무한한 디지털 세상, SBS 뉴스는 영토 확장 중

- 조정 보도국장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28년 차 기자로 아내와 장성한 아들, 딸이 있다. 50대 중반의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지금도 대형 사건이 터지면 가슴이 뛰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마음만은 젊은 기자다.

기억에 남는 일은?

전쟁 취재를 세 번 해봤다. 모두 자원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 전쟁을 취재했는데, 국경이 철저히 봉쇄돼 파키스탄 접경에서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아쉬움이 남아서 2년 뒤 이라크 전쟁을 취재할 때는 아음을 틈타 쿠웨이트 국경을 넘었다. 이라크 남부 최대 도시인 바스라 진입에 성공했는데 그만 이라크 민병대에 체포되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틀 만에 탈출했지만, 당시 사진 몇 장과 구금돼 있던 숙소의 열쇠는 지금껏 간직하고 있다.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때 그걸 보면 새로운 힘을 얻는다. 파리 특파원 시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인 '가자 전쟁'을 팔레스타인 현지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외신과 경쟁하며 전장 상황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보람이 있다.

보도의 현황은 어떤가?

올해 보도는 그야말로 격동기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세 차례의 스포츠 빅 이벤트가 열린다.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퍼스트' 전략에 따라 TV 뉴스와 디지털 뉴스를 융합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른 부문도 매체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특히 보도는 업무 영역이 무한대로 넓어졌다. TV 뉴스뿐 아니라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포털, SNS 등 수많은 플랫폼에 우리 뉴스를 탑재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바뀌어야 하고 업무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 중요한 시기에 보도국장이 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사회 전체가 극도로 예민해진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은 없어진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방송이 중요하다. 어떤 소재를 다루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쪽에 불리해 보이면 불공정 이슈를 들고 나오는 일이 다반사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충분히 취재해서 보도하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평가의 잣대가 엄격한 지상파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부임 2개월이 넘었는데 변화가 있나?

코로나로 인해 여럿이 함께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젊은 후배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 작년과 재작년 사회 에디터로 일하면서 우리 조직에서 제일 젊은 기자들과 한술밥을 먹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지금도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듣고 또 전하고 있다. 모두 변화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주니 고맙다.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과감하게 변화를 계속할 생각이다.

SBS 보도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보도국장으로 부임한 뒤 구성원들에게 '가치 보도'라는 화두를 던졌다. '가치 보도'란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념과 편향성으로 사회를 갈라치기하고 민생을 어지럽히는 뉴스는 하지 않겠다. 그런 점에서 SBS 뉴스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요즘 "뉴스는 SBS밖에 볼 만한 데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자기들의 주장에 스스로 매몰되는 뉴스는 외면받고 있으며, 균형 있고



깊이 있는 뉴스를 찾는 독자와 시청자들이 SBS를 찾고 있다.

작년에 <SBS 8 뉴스>가 메인뉴스 중 2049시청률 1위를 했다. 타사의 추적이 거센데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는 시청자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뉴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래서 균형감 있는 우리 뉴스가 편향적인 팬덤을 가진 다른 매체에 비해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지난 2~3년간의 좋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2049시청률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공정한 뉴스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사실 디지털 퍼스트 시대에 TV 시청률은 TV라는 하나의 플랫폼이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다. 현재 보도는 TV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디지털로 영토를 넓혀가는 중이다. 자극적인 소재로 클릭 수만 늘리는 전략이 아니라 '가치 보도'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한마디

항상 우리 보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사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뉴스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뉴스를 구독하고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집사부일체> 시즌 1 시청점유율 1위! 성공적 론칭



SBS가 말레이시아 1위 지상파 채널인 TV3(미디어프리마그룹)와 공동 제작한 말레이시아판 <집사부일체> 시즌 1이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순항 중이다.

말레이시아 <집사부일체> 시즌 1은 1월 15일(토) 첫 방송부터 동시간대 시청점유율 1위(18.7%)로 올라섰고, 2회 방송은 20.5%까지 치솟으며 타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을 압도했다. <집사부일체>가 방송되기 직전의 시청률과 비교하면 2배가량 상승했다.

말레이시아 유명 배우, 가수 등 아티스트 5명으로 구성된 제자들이 각 분야의 사부를 만나는 말레이시아 <집사부일체> 시즌 1은 총 10회 중 4회를 한국에서 촬영했다. 한국 사부로는 Got7 뱀뱀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퍼포먼스 디렉터인 손성득이 나섰다. 첫 방송의 사부로 나선 뱀뱀은 백제의 수도였던 충남 부여에서 시종일관 유쾌하면서도 친절하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했다. 제자들과 같이 투호 등 전통 놀이도 체험하고, 삼국시대부터 문화를 수출한 한류의 조상 격인 백제의 찬란한 문화도 소개했다. 나머지 여섯 편에는 유명 가수, 스포츠맨, 요리사 등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사부 6명이 출연한다. 한국 편을 연출한 이환진 PD는 "멤버들의 케미가 놀라웠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그들의 열린 자세에서 오히려 한 수 배웠다"고 말했다.

공동 제작을 기획한 유운재 부장은 "미디어프리마와의 협업으로 SBS의 혁신적인 글로벌 포맷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공동 제작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맷 선판매 쾌거, 방송도 대박



설날 특집 <판타스틱 패밀리 - DNA싱어>가 이미 방송 전에 영국 대형 포맷사인 프레멘틀에 포맷이 판매되며 글로벌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안 단계에서 포맷이 팔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DNA싱어>는 (주)포맷티스트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황보경 작가와 공동 개발한 음악 예능이다. 가수, 배우 등 유명인과 DNA를 함께 나눈 재능 있는 가족들이 'DNA싱어'가 되어 노래를 부르면, 그의 가족인 유명인이 누구일지 거꾸로 추측해보는 포맷이다. 작년 가을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방송컨벤션인 MIPCOM의 Fresh-TV 스크리닝 세션에 소개되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프레멘틀은 글로벌 탤런트쇼 <갯탈런트>와 <아이돌> 시리즈 등의 초대형 음악 경연 포맷을 소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국 BBC One 채널의 <The Masked Singer(복면가왕)>, <I Can See Your Voice(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한국산 글로벌 히트작의 각국 현지 제작을 하고 있다. 1월 17일(월) 체결된 계약으로 프레멘틀은 아시아 외 지역에서 DNA싱어의 글로벌 배급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

프레멘틀의 바샤 윌리스 상무는 “<DNA싱어>는 전 세계적으로 시청자들이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는 가족 추리 게임쇼의 일종이다. 음악 게임쇼에서 추리 요소는 다른 중요 요소들과 함께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이 입증돼 왔다. <DNA싱어>는 이 게임을 조금 더 독특하게 비틀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프레멘틀의 라인업에 추가 되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전세계에 선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맷티스트의 김일중 이사는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증폭되면서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 포맷을 선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도 미국 폭스 등 다양한 방송, 제작사들과 다양한 협력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2월 1일(화)과 2일(수)에 방송된 <판타스틱 패밀리 - DNA싱어>는 감동과 재미를 다 잡았다는 호평 속에 설 연휴에 방송된 전체 설 특집 파일럿 중 2049시청률 1위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지원 PD, 언론사 PD 1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됐다



이지원 PD 사랑의 열매 조흥식 회장

예능본부 이지원 PD(예능 5CP)가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2020년 3월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 리더에 가입한 이지원 PD는 더욱 큰 나눔 실천을 위해 지난해 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이지원 PD가 1억 원 기부를 약정해 언론사 PD 회원 1호가 됐다고 밝혔다. 아너 소사이어티 2774호다. 기부금은 이지원 PD의 뜻에 따라 저소득 가정 내 아동·청소년의 생계비와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목)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가입식에서 이지원 PD는 “넉넉하기에 나눔이 아니라 나누기에 넉넉하다는 생각을 갖고, 더욱 열심히 살아보자는 각오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뜻깊은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훌륭한 일을 했는데 뒤늦게 알려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 PD 1호라고 기사를 내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 알게 모르게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우들이 많을 텐데 민망하고 죄송하다.

나눔을 실천하게 된 계기가 있나?

특별한 계기는 없다. 그냥 관심이 있어서 대학생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눔을 해 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은?

코로나가 막 시작돼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기부하게 됐다.

가족들도 동의했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 미혼이다. 제가 그냥 결정하면 된다. 가족은 없지만 아이들과 동물을 좋아해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아동 결연 후원을 해왔다. 그건 한 10~20년 된 것 같다.

5년 내에 1억을 기부할 것을 약정했다. 조달 계획은 세웠나?

여유자금이 있었다면 한 번에 냈겠지만 저 역시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기부 약정을 한 것은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고, 실제로 매일 마음을 다잡고 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감사하다.(웃음)

제13회 한국방송기자대상 2개 부문 수상



A&T 김원배 이정찬

SBS가 1월 25일(화)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3회 2021 한국방송기자대상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 '회장님의 갑질 의혹... 컬링계 전횡' 연속 보도(이정찬, A&T 김원배)는 스포츠 부문 상을 받았다. 이 연속 보도는 장애인 선수의 인권 문제와 올해의 화두인 스포츠 분야 언어폭력 문제를 잘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정민 김수현

'더 스페셜리스트 - 예술이 당기다'(김수현, 권영인, 남정민)는 문화 부문 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문화 담당 기자가 문화-예술에 대한 심층 리포트를 제작하여 문화 뉴스에 깊이를 더했고, 신선한 소재를 발굴 보도함으로써 문화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2021 하반기 시청자위원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김태현의 정치쇼> 정한성 PD '산업재해사고 연속보도' 이현정 기자 SBS 시청자위원회 황상재 위원장 <라켓소년단> 조영광 PD

2021년 하반기 시청자위원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시상식이 1월 26일(수) 목동 SBS 사옥 2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TV 보도/교양 부문은 <SBS 8뉴스> '노동자의 죽음에 이유를 묻다' 산업재해사고 연속보도(이현정, 최선길, 하정연, 조운하 기자)가 받았다. TV 드라마 부문은 <라켓소년단>(연출: 조영광)이 받았다. 라디오 부문은 <김태현의 정치쇼>(연출: 정한성, 임광현)가 받았다.

하정연, 한소희 제19회 한국여성기자상



한소희 김수정 하정연 한국여성기자협회장

보도본부 사회부 하정연, 한소희 기자가 제19회 한국여성기자상을 수상했다. 두 사람은 2021년 '군의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처우'를 연속 보도했다. 한국여성기자상 심사위원회는 "감시 사각지대였던 군 장병의 격리 환경을 사회 이슈화해 군 당국의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월 20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로켓걸과 후크팬' 2021 하반기 올해의 좋은 방송상



강범석 PD

<SBS스페셜> '나는 산다 로켓걸과 후크팬'(연출: 강범석, 작가: 신은미)이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운동실천본부에서 주는 2021 하반기 올해의 좋은 방송상을 받았다. '로켓걸과 후크팬'은 불의의 사고를 딛고 의족 화가와 의족 골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두 사람을 소개하여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희망TV>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창사특집 <2021 희망TV>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연출: 유영석, 김태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2021년 11월)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25년간 사회공헌 역할을 꾸준히 이어온 프로그램으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종료 아동 문제, 시청각장애 아동 지원, 시청각장애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구성한 점이 탁월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영식, 허민행, 이종민, 서창식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네트워크기술팀 박영식 부국장과 허민행 부장, 윤리경영팀 이종민 부국장, 콘텐츠프로모션팀 서창식 부장이 3월 안식년을 맞는다.



박영식 국장은 SBS TV 개국 전에 입사하여 뉴스센터를 시작으로 TV 주조정실, UHD 주조정실을 거쳐 현업 부서에서만 3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다. 현업부서의 팀장을 맡으면서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SBS 위상 제고에 큰 부분을 기여했다. 다정다감하고 후배를 잘 챙겨주던 자상한 박영식 부국장의 제2의 인생도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본다.



허민행 부장은 라디오기술팀 음향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송신소와 통합관제실 기술감독으로 근무했다. RF 및 통합 관제 시스템의 최고 전문가로서 송출 시스템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해 힘써왔다. 마지막까지 현업을 소중히 생각하는 열정적인 선배로 후배들에게 멋진 모범이 되었다. 유머러스하고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났던 그는 멋진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이다.



지금의 청량제 같은 모습을 유지하길 기대한다.

이종민 부국장은 홍보, 광고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모래시계 귀가시계' 커피의 원작자이며, 현재 SBS의 주요 수입원인 공공캠페인, 제작협찬 등이 그의 작품이다. 현역 시절부터 후배들의 주례 청탁이 쇠도할 만큼 베푸는 사랑과 받는 신망 또한 남달랐다. 어떤 이는 이 부국장을 가리켜 "어려움이 다가오면 웃음으로 풀어내어 일의 재미를 선물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만년 소년 이종민 부국장이 인생 2막에서도



능을 낭비하지 않고 퇴직 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무료 사진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계획이다.

서창식 부장은 1992년 4월 홍보팀으로 입사하여 한 부서에서 한 가지 업무로 30년을 근무한 행복한 사우다. 프로그램 홍보용 사진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빅 이벤트 사진을 남겼으며, SBS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지금도 제주 섭지코지의 <울인> 박물관은 그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북한을 방문하여 사진을 남긴 것과 'SBS 30년사'에 기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 그는 가진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퇴직 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무료 사진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계획이다.